

## 2005년 전반기 한국기상학회 학회 활동 현황 소개

남재철 · 김경옥 · 정현권  
한국기상학회 사무국

### The General Activities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in the first half of 2005

Jae-Cheol Nam, Kyoung-Ok Kim and Heon-Kwon Chung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jcnam@metri.re.kr

#### 1. 서론

2005년도 전반기 한국기상학회의 주요 행사 및 회원활동 현황을 요약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2005년 한국기상학회 임시총회 및 봄 학술대회는 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의 주관으로 강릉대학교에서 4월 27일-28일 양일간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4월 27일 개최된 평의원회의에서 학회 시행세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리고 한, 중, 일 기상학회 공동 제 1차 국제워크숍이 일본 기상학회 주관으로 5월 13일-14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한, 중, 일 기상학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제 2차 국제학술대회가 2006년 10월 26일-27일 한국기상학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2. 2005년 봄 학술대회 개최

2005년 봄 학술대회는 한국기상학회 주최, 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의 주관, 강원지방기상청, 강릉대학교 환경연구소 후원으로 4월 28-29일에 걸쳐 강릉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450여명의 학회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다(그림 1).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학술발표와 함께 5개 분과의 특별세션과 관측포럼 분과도 개설되었으며, 특정한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 토의, 정보교환, 향후 발전방향의 논의 등을 통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경섭 기상청장의 “기상청 디지털예보 개발 및 운영계획”, 독일 하노버 대학 S.

Raasch 교수의 “High Resolution Large Eddy Simulation on The effects of Land Surface Heterogeneities”, 그리고 기상청 박정규 박사의 “APEC 기후센터 설립 및 발전방안”의 특별강연 이외에 243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5개의 특별세션과 포스터세션 그리고 기상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예보” 및 관측관련 사업의 현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알려주는 “관측포럼”으로 구분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별세션으로는 대기역학분야로 GPS, 대기물리분야로 COMS, 기후분야로 기후모형, 환경응용 및 기상기술 분야로 무탄소순환, 그리고 기상기술분야로 ABC세션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 2005년도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있었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 및 기부금 지출에 관한보고, 학술용역과제 시행현황보고와 사무국 직원의 채용, 담당업무 및 인건비에 관한 시행세칙 제 11장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 3. 한중일 기상학회 공동 국제워크숍 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상학회가 공동의 관심과 학술활동 공조를 위해 2003년 중국에서 3개국의 국제학술위원장이 모여서 공동학술대회 개최 권을 협의한 후 2004년 봄, 한국기상학회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ICHWC2004)에서 중국, 일본의 기상학회장을 초청하여 3개 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학술대회를 일본기상학회가 주관하기



그림 1. 2005년도 임시총회 및 봄 학술대회 단체사진



그림 2. 동경대학교 산상회관



그림 3. 한국기상학회장 기념 축사

로 하였다. 국제학술대회는 각국의 기상학회 일정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5월 13-14일 일본 기상학회 주관으로 제 1차 한, 중, 일 기상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그림 2). 한국기상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정효상, 이동규, 윤순창, 손병주, 하경자, 남재철, 김영준, 윤원태, 최병철, 하중철, 변근용, 송철한 등 1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그림 3).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버드대학의 Jacob 교수의 '에어로졸과 오존의 대륙간 영향'과 나고야대학의 Yasunari교수의 '동아시아 몬순 변동에 관한 티벳고원과 지면과정의 역할'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날씨 및 기후'와 '동아시아의 대기 오염과 복사 및 식생에 대한 영향'의 두 가지 주제로 각각 25

편,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제 2차 한중일 기상학회 공동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에서 2006년 가을 기상학회 시점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홍콩 대학교의 Johnny Chan 교수는 홍콩 기상학회에서도 이와 같은 공동 국제학술대회 참여 의사를 보였다. 향후 이러한 한중일 기상학회 공동 국제 학술대회가 최신 연구 결과의 공유, 자료교환, 등친목 교류를 통한 학문교류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 4. 맺음말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의 2005년도는 학회 자체의 독립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학회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봄학술대회는 강릉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한, 중, 일 기상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